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한국예술원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제2회 KAC청소년 단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불로불사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장윤희, 조해인
공모분야	시나리오
시놉시스	영원히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 체 산다면 얼마나 꿈만 같은 삶일까? 끈질긴 생존력을 가진 곰벌레의 DNA를 추출하여 인간의 줄기세포에 배양을 성공한 인간들의 탐욕을 그린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사인생이 된 한 남자의 슬프고도 비참한 인생을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불로불사

장 윤화, 조 해인

<주제>

무한한 생명의 무의미함.

<작의>

누구나 한번쯤 꿈꾸어보았거나 상상해보았을 것이다.

불로불사. 불로장생. 영원한 생명. 뱀파이어와 같은 삶.

영원히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한 채 산다면 얼마나 꿈만 같은 삶일까?

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원한 삶으로 많은 걸 누릴 수는 있으나 그 삶이 과연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

내가 만약 영원히 산다하더라도 주위의 사람들이 늙고 죽어간다면 그 누구와 옛 추억을 회상하고 웃을 수 있을까?

이 작품은 끈질긴 생존력을 가진 곰벌레의 DNA를 추출하여 인간의 줄기세포에 배양을 성공한 인간들의 탐욕을 그린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불사인생이 된 한 남자의 슬프고도 비참한 인생을 다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등장인물>

임 영원 30대 후반 남

값아야 할 빛과 사랑하는 아내의 치료비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임상실험에 참여한다. 그리고 불로불사의 몸을 가지게 된다.

추 현무 50대 중반 남

불로불사의 DNA를 개발한 연구원. 돈에 눈이 멀어 인간미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혈인 이다.

나 현 30대 후반 여

영원의 아내로 불치병을 앓고 있다. 영원이 돈을 버는 목적이자 단 하나의 이유이다.

하 동준 30대 후반 남

영원과 현의 오랜 친구이자 영원이 실험에 성공하고 난 후에도 그의 유일한 친구이

다. 넓은 오지랖과 깊은 감성으로 자신보다 친구를 위해 몸을 불사르는 의리의 남자.

이 광재 20대 중반 남

실험의 첫 번째 참가자. 체력시험을 통해 영원과 친해지지만 영원을 제치고 최후의 1인이 되어 실험에 참가한다. 그러나 그 실험으로 죽고 만다.

그 외...

앵커, 안태형 기자, 똥보보스, 깍두기들, 주치의의사, 연구원, 연구원2, 응급실의사, 수술실 연구원들. 등등..

<줄거리>

과학문명이 끊임없이 발전되어가고 있는 요즘. 영화와 같은 삶이 실현되었다!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 곰벌레의 DNA를 추출하여 줄기세포배양실험에 성공한 현무. 그러나 좀 더 상용화하기 위해선 인체실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현무는 막대한 상금을 내걸고 인체실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신문에 낸다.

한편, 아내의 불치병으로 인해 쌓인 어마어마한 병원금과 그로인해 사채까지 빌려쓴 이 시대의 가장, 영원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변변치 않은 벌이를 하고 있다. 그때,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알고 있던 절친한 친구인 동준에게 신문광고를 받게 된다. 인체실험참여 상금 1억이란 광고를 보자마자 앞뒤 가리지 않고 참여하게 된다.

현무의 연구소에 도착한 영원과 동준은 곧바로 신체검사를 하게 된다. 그러다가 만난 젊은 청년, 광재. 그의 팔에 새겨진 하트모양의 문신이 눈에 띈다. 신경전을 벌이던 체력검사도 끝나고 최종적으로 실험에 들어갈 1인으로 광재가 뽑힌다.

그리고 며칠 후, 택배를 하며 근근이 벌어먹고 살던 영원에게 연락이 온다. 바로 실험에 참가해달라는 전화. 영원은 돈이 간절하기에 하던 일도 팽개치고 연구소로 달려간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연구소에 발을 내밀던 순간, 하얀 천을 덮은 시체가 실려 나간다. 영원의 앞으로 시체가 지나갈 때 팔이 떨어지고 마는데, 그 팔엔 하트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 돈과 목숨사이에서 갈등을 하던 영원은 현을 살릴 생각에 죽음을 각오하고 실험에 참가하게 된다.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하얀 문이 열리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영원의 모습이 보인다. 영원의 옆에서 차트를 들고 체크를 하던 현무는 만족스런 표정을 짓는다. 실

현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고 네가 빚진 사채와 아내의 병원비는 모두 청산되었다고 말하는 현무. 돈 계산까지 끝마친 현무는 영원에게 남은 금액이 든 통장을 주고 나간다. 영원은 아내가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한다.

현이 입원해 있는 대학병원. 영원은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다. 병실에 도착을 하던 그 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황급히 병실로 달려간다. 현에게 심장발작이 온 것! 심폐소생술로 가까스로 살아난 현은 영원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는다.

소란스러웠던 병실에 조용함이 찾아오고 영원과 현만이 남게 되었다. 영원의 얼굴을 쓰다듬는 현의 눈가엔 주름이 져있다. 영원에게 집에 가자고 하는 현. 영원은 마지막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퇴원을 결심한다.

퇴원을 한 현과 영원은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중형차. 고개를 돌린 둘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이고 만다.

응급실로 실려 오는 둘은 피투성이가 되어있다. 각자 의료진들이 사력을 다해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이 통기듯 일어난다. 상처는 모두 아물었고 흘린 피만 피부에 굳어있는 영원의 몸. 검사를 하자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에게로 향해가는 영원은 죽어가고 있는 아내를 보게 된다. 현을 살리려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다급한 움직임. 그러나 현은 심장박동수가 점점 느려진다. 이윽고 현의 심장박동수가 멈추고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다. 현실을 믿을 수 없는 영원은 아내를 붙잡고 하염없이 현의 이름만 부른다.

현의 장례를 치른 영원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집에 들어선다. 현과 함께 살았던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영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살을 시도한다.

넘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연구서에 도착한 영원. 현무를 찾아내 멍살을 잡는다. 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냐며 분풀이를 한다. 현무가 숨을 헐떡이며 책상위로 몸이 넘어가지만 영원은 죽일 듯이 조른 목을 놓지 않는다. 서랍에서 맹독이 든 주사기를 꺼내는 현무는 그대로 영원의 배에 꽂아 쏘아버린다. 맥없이 쓰러지는 영원.

다음 날, 영원은 터미널 역에서 깨어난다. TV앞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자 영원 또한 TV로 시선이 쏠린다. 그러나 TV속 뉴스에서는 영원의 교통사고 영상을 보여주며 홍보를 하는 현무를 보게 되고 영원은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TV를 부셔버린다.

동준의 집으로 향한 영원은 그 간 있었던 일을 모두 동준에게 털어놓는다. 자신의 일처럼 격분한 동준은 두발 벗고 도와주겠노라며 현무의 연구실로 앞장을 선다.

현무의 연구소 앞은 이식을 받기위해 온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렸다. 그 속에서 몸을 숨긴 영원과 동준은 연구원들의 눈을 피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수술실을 찾던 중, 연구원들에게 들키게 된 영원과 동준. 연구원들이 그들을 향해 뛰어오자 동준은 자신이 막고 있을 테니 어서 가라고 한다.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

리던 영원은 수술실로 들어간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안으로 들어오게 된 영원은 수술 중이던 현무와 연구원들을 마주하게 된다. 잠시 후, 영원이 모든 일의 근원인 줄기세포가 든 실험관을 들고 나오는데 그의 몰골은 처참하게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피로 물든 수술실 안에는 무영등이 깜박거리고 그 조명 아래로 연구원들과 현무가 쓰러져 있다.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 안에는 꿈에 부푼 사람들이 가득 차있다. 영원이 그들의 시선을 끌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을 뱉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 사건의 근원인 시험관대를 높이 들어 땅으로 내려치고야 만다.

S#1. 영원의 사무실 안 - 늦은 점심

낡은 컴퓨터책상과 책장. 네모난 상을 둘러싼 낡은 소파뿐인 초라한 사무실.
 소파에 앉은 영원(남, 30대 후반)은 상 위에 올려져있는 자장면그릇의 랍을 벗긴다.

윤기가 흐르는 자장면을 다 비빈 영원은 TV를 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한다.
 주름진 바지, 때가 지워지지 않은 와이셔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홀아비의 애잔함이 느껴지는 영원.
 소리가 흘러나오는 TV속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남, 40대).

앵커 여러분, 혹시 곰벌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벌레는 우주에서도 살아남아 지구최강의 생존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벌레의 세포를 추출 하여 신화를 창조한 이가 나타났습니다. 안태형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면이 바뀌고 추현무소장(남, 50대 후반)과 나란히 서있는 안태형기자(남, 20대 후반).

안태형 네, 저는 신화를 창조한 추현무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신화창조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이유를 추현무소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현무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는 우주최강의 생존력 곰벌레. 최강생존력을 자랑하는 벌레의 DNA를 추출하여 인간에게 배양할 경우 그 인간 또한 최강의 생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금세 반이나 먹은 영원. 계속 흡입한다.

현무 게다가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제 실험은 앞으로 우리 삶에 영화나 책속에서만 보았던 불노불사가 실현가능할 것입니다.

추현무의 말이 끝나자 쏘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그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리고 그제 자장면을 다 먹은 영원은 자장면그릇을 퍽하니 놓고 트림을 찰 지게 한다.

영원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비웃으며) 웃기고 있네.

그때, 사무실 문을 세게 차고 들어오는 깃두기 서너명.
 그들을 본 영원은 식겁을 하며 도망치려한다. 하지만 영원을 잡아 그대로 내팽개치는 깃두기.
 별별 떠는 영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를 둘러싸 무자비하게 영원을 밟기 시작하는 깃두기들.
 금세 멍투성이, 엉망진창이 된 영원의 얼굴.

영원 (싹싹 빌며 비굴하게) 이번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한번만...

영원을 향해 걸어오는 사채업자들의 보스, 똥보(남, 30대 초반).

똥보 (영원의 얼굴을 부여잡고는) 매번 살려 달라 카는데... 아니~ 우리가 죽입니까? 콧 기냥 이번에 죽여주까예? 장기하나 빼보까예?

영원 (똥보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한번만 살려주세요. 요새 변호사세계도 불황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뜰이나 아내도 큰 병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번 한번만 봐주시면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똥보 그기는 내 알바가 아니고예. 일주일입니다. 일.주.일.후! 다시 찾아왔을 때는 내 앞에 현금 8천. 딱 준비 하이소.

똥보가 나가자 영원을 밟던 깃두기들도 따라 나간다.
 일어서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금세 엎어지고 마는 영원.

S#2. 서울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 저녁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영원의 아내인 현(여, 30대 후반).
 상처투성이인 얼굴로 유리창문 너머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영원.
 그의 잔주름이 진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즐거웠던 신혼시절이 떠오르는 영원.

S#3. 영원의 회상

- 영원의 집/아침

새로이 이사를 한 영원의 집. 잔뜩 싸인 짐을 본 현과 영원은 한숨을 쉰다.

-영원의 집/ 오후

짐 정리를 모두 마친 둘은 땅바닥에 널브러진다.

-마트

커플티를 입고 장을 보는 둘은 한눈에 봐도 신혼부부다. 둘의 행복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는다.

-영원의 집/저녁

저녁을 먹는 둘. 서로 먹여주며 알콩달콩 사이가 좋다.

S#4. 다시 서울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맺혔던 눈물이 떨어지자 얼른 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영원.
그런 영원의 곁으로 다가오는 현이의 주치의의사(여, 40대 중반).

주치의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가 밀려 치료는 더 이상 불가능하구요.

영원 (주치의의 손을 간절히 붙잡으며) 돈은 어떻게든 구할 테니 제발 치료 해주세요. 포기할 순 없잖아요.

난감한 표정의 주치의는 영원의 손을 놓아버리고 복도를 가로질러 사라져버린다.
땅에 주저앉아 서럽게 통곡을 하는 영원.

영원 뭐 이런 거지같은 세상이 다 있어! 돈 줄게! 그 더러운 돈 갖다 줄 테니까…….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고 울고 있는 영원의 곁에 다가와 등을 토닥겨주는 손.
영원이 고개를 들어 보면 그의 오래된 소꿉친구 동준(남, 30대 후반)이다.
영원의 꼴과 비슷한 동준의 물결.

영원 너 왜 그래? 맞았어?!

동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그래 임마, 네 사채업자들이 깡판치고 왔다. 친구 믿고 보증 쓴 내 잘못이지.

친구를 볼 면목도 없고 창피함과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이는 영원.
영원의 옆에 같이 앉는 동준.
동준은 영원에게 접혀진 신문을 건넨다.
받아든 신문을 편 영원은 형광펜으로 쳐진 광고를 본다.

‘임상실험 참여모집, 상금 1억’

영원은 광고를 보자 눈이 더 커지며 신문을 더 가까이 본다.

동준 한번 해볼래?

동준의 물음에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영원.

영원 1억이나 건거면.....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동준 지금우리가 그걸 따질 처지냐? 찬물더운물 가렸다가 장기하나 빠질 수도 있어!

신문과 아내 현을 번갈아 바라보는 영원은 다짐한 듯 병원 문을 나선다.

S#5. 현무의 연구소 앞 - 아침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든 현무의 연구소 앞에서 택시를 멈춘 영원과 동준.

길 줄을 서서 지원서를 접수하는 영원과 동준.

기본적인 신체검사를 받는 영원은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여러 생각이 든다.

영원 (E) 죽어도 보험금은 나올 테고..... 그럼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우리 현이 수술비도 마련하고..... 밀쳐야 본전이지!

S#6. 체력 단련실

체력실로 가는 영원은 기필코 합격을 하겠노라고 의지를 불태운다.

대기를 하고 있던 영원의 옆에 서는 근육이 우락부락한 참가자, 이광재(남, 20대 초반)

영원과 눈이 마주치자 팔 근육을 꿈틀거리며 자랑을 하는 광재.

광재의 팔에는 어울리지 않게 화살을 맞은 하트가 그려져 있다.

그에 비해 가녀린 잔 근육을 소유한 영원은 자신의 팔을 가리며 먼 산을 바라볼 뿐이다.

체력검사가 시작이 되고 짝꿍을 이루게 되어 영원과 신경전을 벌이는 광재.

-팔굽혀펴기를 하던 중, 근육에 경련이 온 광재는 몸을 부르르 떨며 넘어지고 땅에 코를 박는다.

그에 비해 가벼운 몸을 소유한 영원은 거뜰히 100개를 채운다.

-윗몸일으키기가 진 행이 되고 아까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광재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윗몸일으키기의 기록을 세운다.

그에 비해 영원은 남은 힘을 쥐어짜며 일어서는 순간, 영원의 팔약근에서 힘이 빠지며 가스가 새어나온다.

웃음을 터트리며 사람들.

S#7. 연구소 지하식당 - 점심

검사가 끝나자 식당으로 내려온 영원과 동준.

줄을 서서 도시락을 받아든 영원과 동준은 도시락을 받고 자리에 앉는다.

불쭙 튀어나와 함께 앉는 광재.

광재 (도시락을 까며 녀살종게) 아까 잘 하시던데요?

영원 (씩소를 날리며) 아예~ 속도 시원하고 좋네요.

젓가락을 잡고 밥을 집는데 팔을 부들부들 떨면서 입에 오기도 전에 다 떨어뜨리는 영원.

그 모습이 웃긴 동준은 배가 빠지게 웃고 웃음을 참던 광재도 피식 웃는다.

영원은 자기 모습이 웃긴지 실소를 터트리며 다 같이 웃는 그들.

S#8. 현무의 연구소 강당

체력검사를 했던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연구원이 명단을 들고 그들의 앞에 선다.

연구원 지금 실험에 참가하게 될 실험자가 선택되었습니다. (잠깐의 적막)
이 광재! 축하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축하를 해주며 박수를 쳐준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의 영원은 축하를 해주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마음에 환한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다.

S#9. 주택가 앞 도로 - 아침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일 후, 택배아르바이트를 하던 영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온다.

연구원 (F) 네, 여기 추현무연구소입니다. 전에 실험에 지원하셨죠? 축하합니다. 추가 합격되었습니다!

영원 (의아해하며) 네?!

전화를 끊은 영원은 한참을 고민한다.

영원 밀저야 본전이지.

택배 의상을 벗어버리고 차를 몰고 연구소로 향하는 영원.

S#10. 현무의 연구소 앞

영원이 입구에 들어서려고 발을 내민 순간 구급대원들이 하얀 천을 덮은 시체를 싣고 나간다.

그들이 영원의 앞을 지나가던 그 순간, 화면이 느려지며 힘없이 떨어지는 팔에 화살을 맞은 하트가 그려져 있다.

-회상 S#6 에서 팔 근육을 자랑하는 광재의 팔에 그려진 문신.

몸이 동상이 된 것 마냥 굳는 영원.

혼란스러워 하더니 발길을 돌려 그대로 뛰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멈칫한다.

-회상 S#2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내

주저앉아 한참을 망설이던 영원은 지갑을 꺼내 결혼사진 속 아내를 바라본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연구실로 가는 영원.

S#11. 실험실 안 - 오후

영원이 하얀 문을 열고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자 현무가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다가온다.

현무 (계약서를 들이밀며) 아마 뉴스를 보셨겠죠?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인간에게 즐기세포배양을 실험하는 거뿐이니깐요. 얼른 사인하고 시작하죠.

현무의 재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는 영원.

계약서 중 ‘실험성공시 4억을 지급한다.’ 라는 문항을 읽고 눈이 동그해진 영원.

영원 1억 아니었어요?

현무가 눈짓을 하자 옆에 있던 연구원(여, 20대 중반)이 설명을 한다.

연구원 그건 실험참가 시 1억이고요. 성공 시 4억을 더 드리는 거죠.

영원(E) (경악을 하며) 그럼.. 참가하다 죽으면 1억이란 말이야..? 살아남아야
4억.. 세상에..그 놈의 돈이 뭔지.. 그래도 1억이면 내가 죽어도 우리
현이 당분간 먹고살만하겠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영원.

사인이 끝나자마자 연구원들이 영원을 에워싸고 하얀 문이 닫힌다.

S#12. 실험중인 영원과 현무

- 수술실.

누워있는 영원에게 수술을 하는 현무.

힘이 드는지 식은땀을 흘리고 옆에 조수는 땀을 닦아준다.

옆에 놓인 실험관에서 줄기세포를 꺼내 영원의 몸에 이식하는 현무.

- 실험실1.

냉기가 흐르는 방 안.

영원의 모습이 보이는 창틀을 사이에 두고 방의 온도를 내리는 현무.

옆에 얼어붙은 기계엔 -210°C라는 빨간 표시가 보인다.

안에 영원은 숨기는 하지만 버틸 수는 있다는 듯이 주위를 둘러본다.

- 실험실2.

실험실1에 비해 열기가 넘치는 실험실2.

방금과 똑같이 영원의 모습이 창틀 사이로 보인다.

방의 온도를 올리는 현무.

이글거리는 방안의 모습 옆, 기계엔 151°C라는 빨간 표시가 보인다.

마찬가지로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영원.

- 수심이 깊은 바다.

영원이 산소통을 매달고 바다 깊숙이 들어간다.

옆에 조수는 걱정이 되어 초조해하지만 현무는 무게감 있게 가만히 지켜본다.

조수가 들고 있는 기계(얼마나 내려갔는지 알 수 있는 기계)의 숫자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잠시 후, 영원이 다시 올라오는데 멀쩡하다.

S#13. 1개월 후, 연구소 - 아침

자막 1개월 후

하얀 문이 열리고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영원이 의자에 앉아있다.

핏기를 잃은 피부, 날렵해진 턱선. 없어진 눈가의 주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영원의 모습.

옆에서 차트를 들고 체크를 하는 현무.

현무 (만족스런 표정으로) 실험은 성공적입니다!

영원 (믿지 못하며)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현무 (통장을 푼하니 주며) 그리고 당신이 빚진 사채와 아내의 병원비는 모두 해결되었으니까 한번 확인 해보고. 남은 2억은 통장에 남겨 놔습니다.

영원 (환히 웃으며) 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가버리는 현무.

병원에 있는 아내가 떠오른 영원은 서둘러 연구소를 나간다.

S#14. 대학병원 일반병실 앞

아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달려온 영원.

현이 있는 병실 앞에서 문을 열려던 그 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영원을 지나쳐 황급히 병실 문을 열고 현에게로 달려간다.

S#15. 대학병원 일반병실 안

심장발작이 온 현을 둘러싼 의사들과 간호사들.

긴박한 분위기속 심폐소생술이 몇 차례 이어지고 그 광경을 문 앞에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영원.

그때,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현의 심장 박동 수.

힘겹게 눈을 뜬 현은 영원을 보자 눈물을 흘린다.
 영원 또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S#16. 일반병실 안 - 황혼

석양이 비쳐 금빛으로 물드는 병실 안.
 누워있는 현의 옆에 앉아있는 영원.
 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생각에 빠져있는 영원.

현 우리, 이제 집에 갈까?
 영원 안 돼. 아직 다 안 나왔잖아.
 현 집에 가고 싶어. 가자, 응?

살짝 웃어 보이는 현의 눈가엔 잔주름이 가득 져있다.
 그녀를 바라보는 영원은 옅은 미소를 지어주며

영원 그래, 가자.

S#17. 병원 앞 횡단보도

병원에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선 영원과 현.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과 부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다.
 현은 휠체어에 타있고 영원은 휠체어를 밀며 건넌다.
 휠체어의 바퀴가 잘 밀리지 않아 영원이 킁킁거리고 있는 사이 횡단보도의 사람들은 거의 건너가고 영원과 현은 한참 떨어져서 건너려고 한다.
 그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중형차.
 속도를 줄일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속도를 더 내며 달려온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경적을 울려대는 차의 소리에 고개를 돌린 둘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이고 만다.

S#18. 응급실 안 - 밤

응급실 안으로 실려 오는 현과 뒤이어 실려 오는 영원.
 모두 의식을 잃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현과 영원에게 각각 의료진들이 다가가고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한다.
 영원의 상태를 살피던 의사가 영원의 옷을 찢고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만 피만 묻어 있을 뿐 상처하나 없다.

의아함에 영원의 눈에 후레쉬를 비쳐보는데 영원이 벌떡 일어나버린다.

의사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괜찮습니까? 환자분? 외상은 없지만 검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뇌출혈이 있을 수 있고 차후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달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아내에게로 달려가는 영원.
 그녀에게 다가가려 하자 간호사들이 그를 말린다.
 옆에선 지혈을 하고 심장전기충격기로 현을 살리려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다급한 움직임.
 그러나 점점 느려지는 현의 심장박동수.
 이윽고 현의 심장박동수가 멈추고

의사오후 8시 45분 사망하셨습니다.

영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현의 손을 잡으며) 현아. 일어나봐. 현아, 현아!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는 현.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영원은 하염없이 아내 이름을 부른다.
 현의 손을 꼭 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영원.

S#19. 영원의 집 - 밤

장례식을 마치고 상주차림으로 집으로 온 영원.
 넋을 잃은 사람처럼 현과 함께 살았던 집안 곳곳을 둘러본다.
 고개를 돌리는 곳곳마다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이고,

영원 (더욱 괴로운) 퇴원만 안했으면... 다 나 때문에...

자신이 죽도록 미운 영원.
 멍멍한 가슴을 부여잡고 우는 영원.
 자신의 전부였던 아내를 잃은 영원은 서랍에 있는 밧줄을 꺼낸다.
 의자를 내딛어 천장에 밧줄을 묶는 영원.
 동그란 원을 만들어 그 원 안으로 얼굴을 들이민다.

S#20. 연구소 안

넘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연구소에 도착하는 영원.
 현무를 찾아가 먹살을 잡으며 밀어붙인다.
 책상 끝에 부딪힌 현무.

영원 (분노를 참지 못하며) 왜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현무의 목을 조르는 영원의 눈엔 살기가 가득하다.
 몸이 점점 책상 위로 넘어지며 괴로워하는 현무는 손을 뻗어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낸다.
 주사기엔 ‘독성주의’라는 위험표시가 있다.
 영원의 배에 쏘아버리는 현무.
 영원은 고통스러워하며 서서히 쓰러진다.

현무 (손자국이 선명한 목을 매만지며) 5억이나 받고 안 죽는 몸까지 얻었으면 감사합니다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감히 나한테 덤벼? 죽을라고.

영원은 힘겹게 뜨려는 눈을 감고야 만다.

S#21. 터미널 역 - 아침

땅바닥에서 일어난 영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영원을 노숙자로 보며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간다.
 영원은 주사기를 맞은 배를 살피보는데 맞은 주위로 파란 멍처럼 독이 퍼져있다.
 그러나 조금씩 그 범위가 줄어드는 영원의 배.
 자리에서 일어난 영원은 그 자리를 뜬다.

S#22. 역 안 TV 앞

사람들이 몰린 TV앞.
 사람들 속을 비집고 들어가 TV를 보는 영원.
 화면 안에는 현무가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인터뷰내용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사고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무 이 영상은 실험으로 인해 불로불사의 몸을 가진 청년의 교통사고영상입니다. 청년의 옆에 있던 여자는 죽고 이 청년은 보시다시피 아주 멀

썩히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차이점이죠. 이제 여러분들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현무는 자랑스럽다는 듯이 연구결과를 연설하고 그 연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호기심의 눈으로 우와~우와! 호응을 하며 더욱 세세히 바라보고 있다.
분노로 몸을 부들부들 떠는 영원.

영원 (TV를 부수며) 으아악!!!!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사를 하는 현무를 보자 넘치는 분노와 증오로 발악을 하는 영원. 영원은 불쌍히 죽은 아내 현이 떠올라 목이 터져라 악을 지른다.

S#23. 동준의 집 앞 - 저녁

가까스로 동준의 집 앞에 도착한 영원.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안 있어 동준이 나온다.
영원을 보자마자 먹살을 잡는 동준.

동준 너 어디 있었어?! 인마?! 제수씨 그렇게 되고 집엔 없고 연락도 두절 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영원을 껴안으며 엉엉 우는 동준.
영원은 많이 피곤한 탓에 동준을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무안해진 동준은 코를 훌쩍이며 따라 들어간다.

S#24. 동준의 집 거실

영원이 소파에 뺨어 눕고, 따라 들어와 소파에 앉으며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고 다녔냐면서 질문폭탄을 던지는 동준.

영원 (잠시 눈을 감는가 싶더니 일어나 앉으며) 사실..

잠시 후,
이야기를 들은 동준은 입이 크게 벌어지며 경악을 한다.

동준 그게 사람이야? 미친 새끼...

영원 막아야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더 만들어져선 안 돼. 그 자식은 악

마야. 계속 악랄하게 실험을 할 거라고.
 동준 (일어서며) 가자.
 영원 어딜?
 동준 막아야 한다며? 막으러 가야지.

억지미소를 하며 영원을 보는 동준.

S#25. 현무의 연구소 앞 - 아침

연구소 앞에는 즐기세포배양을 받기위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린다.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긴 영원과 동준.

S#26. 현무의 연구소 안

수술준비를 모두 마친 현무는 떼돈을 벌 생각에 연구원들과 자축의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다.

현무 (한 연구원에게) 정각이 되면 문을 열게. 예약손님부터 먼저 수술실로 올려 보내고.
 연구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을 기원합니다, 선생님.

연구원의 말에 뿌듯하게 껄껄 웃는 현무.

S#27. 현무의 연구소 앞

방금 현무에게 지시를 받은 연구원 한명이 로비 문을 열고 나온다.

연구원 (큰 목소리로) 정각이 되면 입장하겠습니다. 대기 중이신 손님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예약손님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줄을 서주세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간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동준의 뒤로 얼굴을 숨기며 들어가는 영원.

S#28. 수술실 복도

적막한 고요만이 흐르고 있는 복도에 동준과 영원이 연구실 하나하나 살피며 걸어가고 있다.

맨 끝에 있는 출입금지표시가 걸린 수술실이 보이고 침을 꿀꺽 삼킨 영원이 문을 열려고 하는 그 순간, 저 뒤에서 그들을 부르는 연구원 둘.

연구원 (다급히 걸어오며) 어이 거기! 그쪽은 수술실입니다! 나오세요!!
 연구원2 나와요!! 어이!!

그들이 뛰어오기 시작하자 동준은 영원을 밀며

동준 어서가! 최대한 막아볼게.
 영원 (머뭇거리다가 결심을 하고) 고맙다.

영원은 안으로 들어가고 동준은 입구를 막으며 뛰어오는 그들을 향해 선다. 크게 숨을 들이 쉬는 동준.

S#29. 수술실 안

안에는 수술 중이던 현무와 세 명의 연구원들이 마스크를 끼고 수술복장으로 수술 중이다.

영원이 들어오자 연구원들의 시선이 영원에게 쏠리고 현무는 아랑곳 않고 수술을 진행한다.

영원이 수술실은 쪽 훑어보는데 오른쪽 선반위에 놓인 실험관대에 꽂아진 실험관들이 눈에 띈다.

영원의 몸에 이식하던 것과 같다.

수술연구원1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영원 (현무를 보며) 원래대로 돌아갈 순 없습니까.
 현무 (수술실 연구원들에게) 끌어내.

연구원들이 달려들려고 하자 영원이 몸을 민첩하게 움직여 메스를 하나 낚아챈다. 영원에게 달려들다가 메스를 들자 주저하는 연구원들.

현무 한심한 놈들, 당장 끌어내!

이판사판으로 달려드는 연구원들.

영원 역시 메스를 쥔 손을 더욱 짹 잡으며 그들에게 달려든다.

잠시 후, 눈두덩과 얼굴은 부어터지고 몸은 피투성이인 영원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시험관대를 통째로 들고 나온다.
영원이 문을 열어놓은 틈 사이로 보이는 수술실 풍경.
무영등이 깜빡깜빡 거리며 수술실을 비춰주고 수술실은 피로 물들었다.
땅에 쓰러져 있는 연구원들.
수술대 위로 쓰러져 있는 현무.

S#30. 수술자 대기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실.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저마다 각자의 꿈에 부풀어 기대에 찬 눈빛이
다.
수술실에서 나온 영원이 대기실로 들어간다.
피로 물든 영원은 책상위로 올라간다.

영원 여러분들은 왜 오래살고 싶습니까?

하나둘씩 영원에게 집중되는 이목들.
영원의 상태를 보며 웅성거리는 사람들.

영원 저는 이 실험의 첫 번째 희생양입니다. 무한한 생명을 얻었지만 사랑
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이제... 평생을 홀로 살아야합니다. 여러분들
은 그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늙고 죽어갈 때 혼자 살고 싶
습니까?

손에 들고 있던 시험관대를 하늘 높이 들며 바닥에 내팽개치는 영원.

영원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물을 흘리며 최대한 가엾게) 평생을 살기보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 그 전에 이 순
간을 소중하게 보내세요. 제발...

The End-